

늪을수록 추한 나무 있을까

향나무 이야기

부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여 설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보았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을 시켜 그 종이를 주워오게 했다. 아난이 종이를 가져오자 부처님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종이인가?”

아난이 종이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대답했다.

“이것은 향을 찢던 종이인 듯합니다. 종이에 아직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길을 향했다. 한참 가다보니 새끼줄 한 토막이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했다.

“저 새끼줄을 가져오너라.”

아난이 새끼줄 토막을 주워오자 부처님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새끼줄인가?”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은 본래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얻는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재앙이 따른다. 마치 저 종이 향을 가까이 하여 향내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에 조금씩 물들어 가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법구비유경 권1

인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을 씻고 화장을 한다. 그러나 속에는 병과 부패물이 가득하다. 마음은 또 어떤가? 번잡한 탐욕으로 카오스 덩어리다. 화장품의 힘을 빌어 껍데기만 겨우 향기를 풍긴다.

향나무는 온몸이 향기 덩어리다. 목재 자체는 물론 줄기, 잎, 수액에서도 향기가 난다. 싱그러우면서 은은한 향기가 구천의 높이까지 풍긴다. 향나무는 예로부터 청정(淸淨)한 존재로 여겼다. 궁궐, 사찰, 정원의 으뜸 조경수다. 우물가에도 한 그루쯤 향나무를 심었다. 향나무의 뿌리가 물을 깨끗이 하고 물맛도 향기로워진다고 믿었다. 향나무가 늘 푸르듯 샘물이 마르지 말라는 염원이 담았다.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향이 일반화된 것은 종교의식에서 향을 피우면서부터다.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의 발상지는 대체로 아열대 지방이다. 종교의식에 모인 군중들의 찢든 옷과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피웠다. 그러다가 향나무에는 잡귀를 쫓는 벽사(辟邪)의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제례, 법회 등 경건한 의식에는 향을 피운다.

붉은 빛이 도는 심재를 깔로 깎아 향료에 넣으면 푸른 연기를 피어 올리며 향이 퍼진다. 요즘 시중에 파는 길쭉한 향은 향나무를 갈아 만든 것이 아니라 향나무 잎을 가루로 만들어 접가물을 넣어 반죽해서 국수처럼 뽑아 낸 것이다.

향나무 목재는 조각이 치밀하고 결이 곧고 윤기가 난다. 고급 조각재, 가구재, 불상, 관재로 쓰인다. 신라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 비로자나불



옛부터 청정한 존재로 꼽힌 향나무
번뇌 막으며 향기 응축, 신승 닮아

은 그 재료가 향나무다. 향나무 껍질에 귀중한 서유나 책, 옷을 보관하면 벌레나 종이 슬지 않는다.

향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상록 침엽 교목)다. 어릴 때는 잎이 짧고 날카로운 손바닥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단단하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면 바늘잎 이외에 찌르지 않는 바늘잎이 함께 생긴다. 자연산 향나무는 울릉도에 몇 그루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향나무는 대부분 심은 것이다. 정원수로 널리 심는, 범생이 중학생처럼 예쁘게 이발한 향나무는 일본산 가이스가 향나무다. 전체가 둥근 모양인 옥향나무, 아예 누워서 자라는 눈향나무, 우물가에 주로 심는 뚝향나무, 향나무연필의 추억이 아련한 연필향나무는 미국에서 수입한 품종이다.

세계적으로 최고급 향으로 치는 것은 침향(沈香)이다. 아열대 원산인 침향나무를 베어서 땅 속에 묻어 썩힌 다음 수지를 채집한다. 이 수지가 침향이다. 값이 비싸고 귀하다. 향기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백성들도 침향을 가지고 싶어

고려 말, 조선 초에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에 향나무를 묻고 표시로 매항비를 세웠다. 일종의 미륵 신앙이다. 그러나 아직 실물 매항을 찾은 경우는 없다. 미군 사격장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은 경기도 화성시 매항리는 향나무와는 관련이 없다. ‘매화향기’란 뜻을 가진 마을이다.

향나무 고목 앞에 서면 숙연해진다. 웅트림하는 자태와 은은한 향기에 압도된다. 사람은 늙을수록 추해지나 나무는 연륜을 더할수록 기품이 넘친다. 필부는 늙을수록 잔소리가 심해지고 쉽게 토라지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한다. 급기야 차메라는 속수무책의 중병으로 별레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기도 한다.

비틀리고 꼬인 오래된 향나무의 자태는 수탉의 이력 같다. 세파와 유혹과 번뇌를 온몸으로 막으며 진한 향기를 안으로 응축해가고 있다. 평생 ‘이뉘꼬’란 화두를 잡고 동구불출, 장좌불와를 실천하고 있는 선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후일 길가에 버려진 우리의 이름에는 향기가 날 것인가, 비린내가 날 것인가. 하루하루가 두렵고 조심스럽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향나무의 웅트림하는 자태와 은은한 향기는 보는 이를 숙연하게 한다. 사진은 청송 향나무.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10월 8일(토) 오전 9시부터

귀의 삼보하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 법화경 사경을 탐 속에 모시는 사경봉안 법회를 봉행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불자님들이 일심으로 사경한 법화경 사경을 머리에 이고서 대승보살의 서원을 가슴에 담아 남느노소 구분 없이 탐돌이를 합시다. 손에 손을 맞잡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염송하며 도량을 참배하면서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고 있는 수행생들이 가진 바능력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성스러운 이 봉안법회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환희와 감동의 법회로 회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석도림·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행사일정표

10월 8일

오전 헌공 및 설법
오후 법화경 사경봉안식
철야정진 법화경 독송기도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천안역 서부광장 앞)
8일(토) 오전 7시 30분 ~ 낮 11시까지 운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1호선 제기역 1번출구 앞 출발 02-928-1331, 1340

10월 8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	진주 박인순(관음행)	011-9312-5712
제주평화통일불사리탑	064-783-8801	수원 박찬희(보현행)	010-6304-3459
부산대연 법화정사(묘진행)	051-623-3595	분당 구순희(명심행)	011-9248-3844
부산초음 법화정사(정정심)	010-2798-6666	울산 윤대숙(수선화)	010-2548-0753
대구 법화정사(백운)	053-751-2366	강릉 민영희(자비화)	010-2287-8855
구미 법화정사(문수행)	011-825-8558	원주 강옥녀(대도행)	033-743-8845
전주 법화정사(정수행)	010-6808-2807	횡성 심명옥(일승행)	010-9921-3690
청주 김명복(백련심)	043-231-5136	인천 정영심(마이심)	010-6295-1068
광주 은미사(연동행)	062-223-4752	마산 윤숙재(묘연화)	010-2591-3934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창원 조민경(관음성)	010-8528-4218
순천 김덕임(대덕행)	017-622-1965	대전 김영숙(지혜심)	010-4433-9100
진해 김기연(성불심)	010-9570-3475	김해 박태행(관음행)	016-9374-3571
진주 조각입(금선화)	010-6799-8584		

문의 : 서울 법화정사 02-928-1331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